



명품로고보다 자기만족 우선 유연한 소비 확산
니



Life

남매경영 끝낸 콜마그룹 바이오 강화 L2



“예측불허 유리에 온기 담아... 사라지지 않는 순간 선물”



새벽을 여는 사람들

유리공예가 최재혁 작가

“유리는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재료가 아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더 어렵고, 그만큼 더 매력적인 재료다.”

최재혁 유리공예가 작가는 유리의 매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작업을 시작할 때는 머릿속에 작품의 형태를 그려두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는 이러한 ‘어긋남’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순간이라고 여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작품만의 고유한 형태와 감각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유리는 다루기 어려운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재료라는 설명이다.

최 작가는 “유리는 종종 말을 잘 듣지 않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뜨거운 유리를 불어 작품으로...대학 시절 시작된 꿈

유리 공방에서 만난 그는 설 틈 없이 손을 움직이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최 작가는 뜨거운 유리를 불어 형태를 만드는 ‘블로잉’ 작업을 중심으로 유리공예를 이어가고 있다. 블로잉은 유리를 파이프 끝에 말아 숨을 불어넣고, 이를 회전시키고 늘리고 다듬으며 형태를 완성해 가는 방식이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유리라는 재료가 지닌 특성과 움직임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작가는 “블로잉은 유리의 물성과 움직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법”이라며 “유리가 부풀고 흐르고 늘어나는 순간을 몸으로 받아들이며 작업해야 하므로 재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가 유리공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리공예 작업을 하던 선배를 알게 됐고 그 모습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작업의 본질로 마음 깊게 각인된 것이다.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공예를 시작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그는 “뜨거운 유리를 직접 다루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블로잉 작업에 큰 매력을 느꼈다”며 “처음에는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려웠으나 뜨거운 유리를 익히고 길들이며 나만의 작업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무척 즐거웠다”고 했다.

◆일상의 감정에서 출발...유리로 완성되는 순간들

최 작가가 영감을 얻는 출발점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다른 분위기다.

그는 “어떤 날의 기분이나 오래 기억에 머



최재혁 유리공예가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롤리팝 디저트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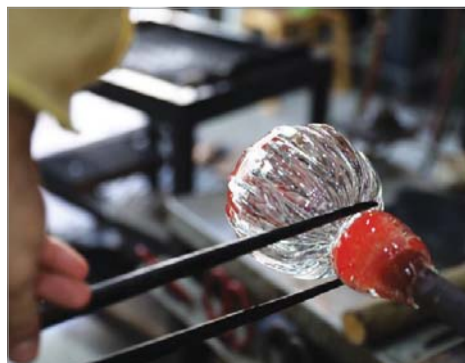
최재혁 유리공예가가 뜨겁게 달궈진 유리를 블로잉 기법으로 성형하고 있는 모습. / 차현정 기자



예측할 수 없어 매력적인 재료 ‘유리’ 재료의 ‘어긋남’이 아름다움 만들어

일상 속에서 느낀 감정에서 영감 얻어 숨 불어넣어 만드는 블로잉 기법 사용 철저한 온도관리, 동료와의 호흡 필수

사탕, 유리로 옹근 ‘롤리팝 디저트 세트’ 녹지 않는 사탕에 소중한 추억 담아 유리공예로 따뜻한 온기 전하고 싶어



최재혁 유리공예가가 달궈진 유리를 블로잉 기법으로 다듬으며 형태를 완성해가는 모습.

무는 장면, 혹은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 쌓이면 이를 스케치로 옮기고 형태와 색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며 “이렇게 방향이 잡히면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 머릿속으로 여러 번 그려보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가 주로 하는 블로잉 작업은 다소 즉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전 구상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유리가 녹아 있는 용해로와 형태를 다듬기 위해 다시 가열하는 글로리홀, 완성된 작품을 천천히 식히는 서냉로 등 여러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업을 돕는 어시스트와의 호흡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업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충분한 구상을 거친 뒤 작업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수다.

최 작가는 “실제 작업이 시작되면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이미지와 감각을 하나씩 형태로 풀어낸다”며 “이 과정은 막연한 감정을 눈앞의 사물로 완성해 나가는 일이자, 흠어진 조각을 맞춰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리공예 과정에서 최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온도 관리다. 온도에 따라 유리의 상태와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결과물에 그대로 드러나서다. 이와 함께 작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역시 기술적인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최 작가는 강조했다.

그는 “유리는 작업자의 상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재료”라며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날의 감정이나 집중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차분히 정리한다”며

“유리를 다룬다는 것은 결국 재료를 다루는 일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리 공예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그는 대학 시절 졸업작품을 준비하던 때를 꼽았다. 블로잉 작업은 여러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과정이기에 더욱 기억에 남았다는 설명이다.

최 작가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함께 웃고 버티낸 시간 덕분에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든 작업이 있기에 그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남았다”고 언급했다.

◆“사라지지 않는 순간 담고파”...기억을 붙잡는 작업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는 ‘롤리팝 디저트 세트’다. 사탕 특유의 진숙하고 밝은 이미지를 유리로 옮겨오면서 익숙한 오브제를 낯설고 오래 남는 형태로 재해석했다. 해당 작품은 최 작가가 주력하는 블로잉 기법으로 제작됐다.

그는 “유리를 불고, 늘리고, 당기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탕공예와 닮은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탕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 사라지지만 유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바로 그 차이에서 이 작업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달콤한 순간과 붙잡아둘 수 없는 기억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녹지 않는 사탕을 만들었다”며 “이 작품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추억의 마음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감동을 남기며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유리공예를 통해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을 담아내고 일상 가까이에서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최 작가는 “내 작업에 담긴 마음이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로 전해지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i

메트로 한줄뉴스



▲유도 중량급 간판 김종훈, 아시아선수권 남자 90kg급 금메달
▲여자 아이스하키, 스페인에 4-1 대승...세계선수권 3부 잔류 확정 /사진 뉴스스

▲금호 SLM 이창욱,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우승
▲구로문화재단, 5월 공연 ‘사운드트립’...배우 조한지·코걸리스트 정승원 출연

▲역경 속 피워낸 예술...실존 예술가 다룬 뮤지컬 잇따라
▲AI·서커스·제주 4.3까지...삼일로창고극장 ‘인큐베이팅 팩토리’ 내달 쇼케이스